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300 FAX: 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교인 월평균 200명씩 증가

배가운동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등록 교인 심방·관리에 철저 기해야

지난 6월 정기당회에 보고된 예배 출석 현황 및 새신자수 통계에 의하면, 매월 20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지난 1월부터 6월 까지 6개월간의 종합 통계의 평

균치이며, 전체 교인수의 약 1.7 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제 배가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등록한 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교인들을 특별 심방하여 온전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미 등록한 교인들은 소속된 각 교구 지도 교역자와 교구장, 지역장들이 심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구 증식과 함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다.

'92 하기 동아촌 전도대 파송기로
"구원은 오직 예수, 전도는 나의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미자립 동아촌 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과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기 동아촌 전도대를 파송한다.

전국 지교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8월 3일부터 7일까지와 10일부터 17일까지 두 차례로 파송하여, 충현전도대와 해당 전도협의회를 지교회에 파송하여 현지 교인과 합동으로 각종 전도 활동을 통한 지역 복음화와 지교회 부흥

에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전도위원회는 7월 19일까지 전도대원을 모집하고(사무국에서 접수), 25일 오후 4시에 전도대원 훈련 및 기도회를, 8월 1일에 전도대별 모임을, 2일에 파송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파송 기간	파송 교회	교역자	인솔 교역자	해당 부서
8월 3일 ~ 7일	재현교회	장병기 목사	김광국 목사	베드로전도회협의회의
	복생교회	장운덕 목사	홍창민 목사	한나전도회협의회의
	부현교회	정희준 목사	김희수 목사	에스더전도회협의회의
	대신교회	홍익표 강도사	조동원 목사	마리아전도회협의회의
8월 10일 ~ 14일	천곡교회	전우성 전도사	장경철 목사	청년 A조
	신현교회	양경운 목사	김용기 목사	바울전도회협의회의
	서현교회	배정양 전도사	김태준 목사	루디아전도회협의회의
	용산교회	김봉환 전도사	한용관 목사	요한전도회협의회의
	미산교회	원인식 목사	임성환 목사	청년 B조
	NMC전도대		이병각 목사	NMC전도대
	춘천교도소		이종대 목사	마리아전도회협의회의

충현프리즘

☉...7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조직 편제상 교구수가 다섯개가 늘어났다. 18개 교구로부터 22개 교구이다. 증설 교구와 함께 담당 교역자(부목사, 여전도사)도 임명이 완료되었다.

배가운동 차원에서 먼저 집을 짓고 입주자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제는 가온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

하여 텅빈 집 교구를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심방과 말씀의 사역으로 돌보는 봉사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믿음과 열심으로...

☉...지난 주일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저녁 찬양 예배에는 교회학교 영아부 유아들의 특성이 있었다.

교회학교 학생으로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만 3세~5세) 영아부

유아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일로부터 울동에 이르기까지 천진난만한 감사 표시를 스스로없이 표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사리손과 작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이들의 맑고 거짓없는 행동에 박수갈채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앙 안에서 티없이 성장하는 영아부 유아들의 교육 훈련이 성숙되어 충현의 미래 지도자의 발판이 되고, 특별히 이들을 지도한 지도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땀 흘림에 하늘의 상급이 더 쌓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성도들의 승용차 대수 팽창으로 인해, 교회 주차장이 만원이다.

교회 차량관리부 부원들이 주차 안내에, 더운 여름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주차할 때에는 주차라인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주차하자.

카메라 초점



▲ 맥추감사절이었던 지난 7월 5일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기도원 정기 집회 신설

차량 운행 시간 조정

교회는 영성 훈련의 산실인 기도원을 활성화시키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와 기도원간 운행되는 차량의 운행 시간도 조정되어, 월, 화,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기도원으로 출발한다.

◆ 기도원 정기 집회

· 새벽 5시 월요일~토요일
· 아침 11시 월요일~금요일
· 저녁 8시 30분 월요일~금요일

기초 수화

비디오 테이프 제작

교회 음향실에서는 농아자 전도를 목표로 기초 수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준우 전도사(에바다부 부지도)의 수화 특강이 수록되어 있는 이 테이프는 농아자 복음화에 뜻이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 보급가는 5천원.

구명신 전도사
사무실 이전

· 선교관 205호(내선전화 347번)
· 환자 심방이나 초신자 양육 심방이 요청되는 성도들에게 언제든 개방되어 있다.

제2회

한일 기독교청년대회 준비 캠프 및 일본 선교 탐방 참가 안내

- 탐방기간: 8월 18일(화) ~ 24일(월)
- 참가자격: 우리 교회 교적을 가진 대학부, 청년부 회원
충현세계선교연구원생, 세계선교위원회 지도 및 임원단,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충현 교인
- 방문지: 오사카, 나고야, 동경 소재 선교 단체
일본인 및 한인 교회, 일본 동맹기독교단 하계 캠프장
- 참가경비: 65만원
- 예비모임: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선교관 403호
세계선교위원장 남선우 장로

알 립 니 다

오는 7월 19일자 주간충현은 항례에 따라 휴간합니다. 제173호는 오는 7월 26일자로 발행하겠습니다. -주간충현 편집국-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그리스도와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마5:17~20)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나 자매들과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지식이나 지성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합리주의, 혹은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신비주의, 열광주의, 광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은 자칫하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극단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하는데 첫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흔히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 하고 신약시대를 복음시대라고 합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다. 복음시대다. 그러므로 율법은

자기들의 율법을 호트러뜨리러 오신 분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성경 이외에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말씀인 ‘미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입으로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들을 모아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강조하다보니 성경 말씀보다 미쉬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쉬나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시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느 항목 하나에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서, 실제로 우리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3:20)

둘째, 율법은 기도할 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역할을 루터는 율법의 2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한 가지를 더 첨가시켰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시119:105, 106)

셋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이 말씀에서 의란 종교적, 윤리적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칼대기와 같아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주의 종 가운데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이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가는 과정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한 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지만, 신약시대의 주일은 부활 기념일입니다.

그럼 창조와 부활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

필요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계22:19).

두번째 극단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롬10:4). 지금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무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주의도 극단적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의 전통과 노회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2 율법의 기능

율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3:24)

첫째,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 노예 계층으로 주인의 아들을 글방에까지 데려다주고, 성년이 되기까지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

율법은 ‘~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율법과 상급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5:19)

이 말씀에는 율법과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 하나님나라는 못들어 갑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율법은 행함으로 받는

것에서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그만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기념일인 주일을 지킴으로써 구약시대에 잘못되었던, 인간이 범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 기념일이 아니라 부활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따르는 그런 입장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II. 우리 나라의 통일 대비

“언제 통일이 실현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답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평화 계획 등을 통하여 각종 예상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일본 등과의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정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이 우리의 분열된 사회 현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지방색, 노사 투쟁, 세대 갈등, 빈부간의 질서, 그리고 정계의 정쟁 등으로 명들어 있는 우리가 과연 매년 290억 불의 통일 비용을 10여년 동안 내가면서 통일 과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

V. 북한 선교

아마도 통일을 가장 열망하고 북한의 민중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온 그룹은 남한의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래 기독교의 교세가 북한이 더 강했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하하여 피난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뒤돌아볼 때 1960년대 초기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 방송 선교(극동방송), 성경 보내기 운동, 중국 거주 교포들을 통한 우회 선교 등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했더라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기실 북한 선교라는 자체가 북한 공산 정권의 종교 말살 정책에 대한 정면 대결이었다.

1946년 3월 5일 실시된 토지 개혁 당시에는 종교 단체가 소유했던 땅 15,195정보를 몰수, 1948에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던 기업 재산 몰수, 1950년 이후 모든 종교 집회 금지, 그 후 전쟁시 반동 행위자 색출이라는 구실 아래 무자비한 종교 탄압으로 모든 교회당은 탁아소 혹은 휴양소로 이용되었다. 그 후 주민등록증에 특별 번호를 기재하여 그리스도

● '92 중헌 북한선교세미나 ●

제1강의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2)

이원설 회장(교육부 교육심의회 회장)

제1강의 :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

제2강의 : 남북대화와 북한 선교(최문현 통일연수원 원장)

제3강의 :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인들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도 세계사의 흐름의 영향을 안받을 수 없어서인지 1970년대에는 조선기독교연맹을 내세워서 종교 자유가 있는 양 대외 선전을 하다가, 1983년에는 신구약성경의 발간을 허용했고 1988년에는 평양봉수교회를 건립했고, 지금 칠골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VII. 향후 교회의 과업

“앞으로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인가?” “오히려 그 문이 더 닫아질 것인가?”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마음에 희망의 형태로 존재하며 오늘의 우리 결단을 촉구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상기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공백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런 미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의한다.

첫째, 공산 세계의 붕괴를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의 소극적 선교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풍선을 통하여 전도지를 살포하거나 중국 교포를 통하여 성경을 반입하는 등의 활동은 북한 당국의 기독교 탄압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중국은 지금 그런 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주의를 요하며 보

다 적극적이며 공개적인 접촉이 요구된다.

예컨대 김일성대학에 종교학과가 생겨서 강의가 시작되고, 또 한국의 어느 목사를 초빙하여 많은 교수들 앞에서 기독교 신학 강연을 한 바 있거니와 아직 신학에 관한 서적이 없어서 책을 요청한다고 한다. 수천권의 책을 보냈더니 그대로 받더라고 한다. 이런 기회에 수만권의 기독교 서적 보내기 운동을 제의하고 싶다.

미국 한인 교회가 중심이 되고 중헌교회 등이 돕고 있는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 등도 좋은 본보기다. 평양의 기존 병원을 돌아보고 온 한 재미교포 의사의 말에 의하면 수술실의 수술 도구가 우리보다 수십년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 소망교회가 추진하는 치과 병원건립도 이런 맥락에서 치할 일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각기 한 가지씩이라도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안하여 지금부터 일에 착수했으면 한다. 예컨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모든 교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북한 동포들의 식생활을 돕는 운동으로 큰 격찬을 받고 있지만, 이에 한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생각할 수 있다. ① 기독교실업인회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개별적으로 하든지 혹은 연합으로 하는 작업, ② 기독교학교연맹은 북한에 기독교대학을 세우는 운동, ③ 신학교협의회에서 평양에 신학교를 건립할 계획,

④ 기독교 연예인들은 기독교 음악, 연극 등을 보급하는 센터 건립, ⑤ 기독교 여성단체들은 북한 여성 계몽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⑥ 기독교 변호사들은 북한의 교회당들과 교회 재산들을 다시 찾아 복원하는 준비 등등이다.

셋째, 이런 작업들을 연합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① 북한선교협의회를 북한 선교를 이미 하고 있는 단체들과 또 이에 관심을 표하는 모든 단체들의 대표로 구성했으면 한다. ② 북한선교연구소를 창설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교

육, 사회, 문화, 종교 등을 신앙적 시각에서 연구하여 기존 간행물에 기고하고 또 서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진행되기 바란다. 이런 연구소가 있어야 이미 활동중인 북한학회의 북한연구소, 통일원 교육홍보국 등과 정보 교환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미 북한선교통일훈련원이 개설되어 재래식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하게 기술자, 과학자, 교육자 등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도록 훈련원이 설립되었으면 한다.

VII. 맺는말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지금이 카이로스이며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행동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미래는 이미 오늘 우리의 결단과 행동에서 움트고 자라고 있다는 어거스틴의 명언을 기억하면 북한 선교를 전교단적 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밤에 하고 싶은 일은

이인순 집사(제17교구)

이 밤에 나는 내게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폐부 깊은 곳에서 저러오는 찬양을
결신 들린 영혼에 채우고 싶습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세상에선
무작정 인정(人情)을 버려놓고
내 눈에선 한 방울의 눈물로 가슴을 못적시지만
감격으로 자꾸만 두 손이 올라가
예수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랑할수록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릴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 버리신 예수님!

당하신 희생의 열매가
가슴에 충격으로 박혀올 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늘에 뜻을 갈망하는 눈물로 바꾸겠습니다.

나뭇잎 사이에 여름이 머무는 싱그러운 이 밤
지금 만난 모든 이들과
거꾸거꾸 심령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칼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김의철 장로
(장학회장)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유한한 인간에게 절대적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새 것을 찾는 나머지 미래에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이를 테면 새 시대, 새 인물, 새 사고, 새 정치, 새 물질이란 단어를 구사하면서 구 시대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들은 다할 수 없고 자기가 정치를 하면 새 시대, 즉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지평선 넘어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다’기에 그곳에 가

가보니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또 저 멀리 지평선만 보이네.’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은 가도가도 오아시스(행복, 추구하는 욕구 충족 같은 것)는 보이지 않더라는 뉘 두리일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끄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전1:9-11)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새 시대가 없다고 가르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야만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밋모섬에서 요한 사도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적 역사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은 전통과 옛문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새 시대, 새 인물 물갈이를 논하기에 앞서서 지난 역사와 문화에서 훌륭했던 점을 찾아 계승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사고나 사상 같은 것은 그 사람의 교육이나 경험을 통하여 나옵니다. 대학원 과정을 밟은 사람과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사상 발표가 꼭 같을 수 없습니다. 풍부한 학식,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된 기술이나 사고에서 값비싼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린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부터는 보다 나은 새 시대를 위한 문화 같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다려야 할 참된 새 시대는 재림 신앙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살아갈 때 새 시대를 지향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호 칼럼은 엄필성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와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의 집회를 인도하게 하시며,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교구 배가, 금요찬양집회를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5. 총현봉사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자,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8. 각 교구가 부흥하게 하소서.
· 제1교구: ①교구 전 가족들에게 주일 성수의 믿음을 주소서. ②남녀전도회가 배가되게 하소서.
· 제2교구: ①교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고 금요찬양과 기도회 적극 참여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소서. ②교구 성도들의 기도회 응답해주시고, 배가전도와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제3교구: ①성령 충만 받아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하도록 은혜 주시어 가족과 구역이 배가되게 하소서. ②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역에 축복을 주소서.
· 제4교구: ①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각 가정의 불신 남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 제5교구: 구역과 전도회 일꾼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주소서.
- 제6교구: ①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거룩한 가정,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성령의 역사로 구역마다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남녀전도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소서.
- 제7교구: ①교통난 해결되게 하소서. ②남성도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③ 성령 충만하여 전도에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 제8교구: ①각종 예배 및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교구 일꾼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더욱 충성, 봉사하게 하소서.
- 제9교구: ①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아 봉사하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소서.
- 제10교구: ①분할된 4지역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하여 ②교구장 이하 구역일꾼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 제11교구: 강동 구역의 임대 아파트 거주 성도들이 무사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소서(8세대).
- 제12교구: 모범적 교구로 성장하게 하시며, 연내에 배가되게 하소서.
- 제13교구: ①배가 운동에 앞장서는 교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②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③ 병든 자들의 쾌유와 경영하는 사업

- 이 형통하게 하소서.
 - 제14교구: ①구역 배가로 인하여 교구가 부흥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②성령 충만 받고 삶의 모든 부분마다 감사의 생활로 영위되게 하소서. ③ 경영하는 사업에 축복받도록
 - 제15교구: ①맡은 일꾼마다 영육간의 강건 얻어 충성하게 하소서. ②모든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 제16교구: ①사업이 어려운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②가정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목하게 하소서.
 - 제17교구: ①금요찬양집회에 참여하여 능력받고 배가 전도하게 하소서. ②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 제18교구: ①이 나라를 가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②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9. 교구별 환자 명단
- 제1교구: 박계녀 권사, 박명자 집사, 손용권 성도, 고득순 성도, 홍순철 성도, 장성준 집사, 안정순 집사, 오덕환 성도, 여운혁 성도, 허정호 성도, 강삼선 권사, 강학송 성도, 김진백 어린이
 - 제2교구: 이석옥 성도, 손삼옥 성도, 박경자 성도, 이봉남 성도, 임명자 성도, 윤원노 성도, 강수분 성도, 한희숙 성도, 이금란 성도, 김지선 성도
 - 제3교구: 석옥순 권사, 최경숙 권사, 류향란 집사, 최규 집사, 정영현 성도, 소현 성도, 이규희 성도, 허정희 성도, 유혜실 성도, 이문희 성도, 박소간란 성도, 전학도 성도, 오학민 성도, 신동화 성도, 김시영 성도
 - 제4교구: 이원철 장로, 노원석 성도, 고석찬 원로권사, 강신주 권사, 김문현 성도, 오현숙 권사, 홍

- 계순 권사, 박영수 성도, 박상준 집사, 신용호 집사, 전병금 성도, 김정례 성도, 이형근 성도, 한숙 집사, 이종택 집사, 오범규 성도, 김지훈 어린이, 김아름 어린이
- 제5교구: 유효열 권사, 박영옥 권사, 김정임 권사, 서옥재 권사, 정순자 권사, 우선비 권사, 홍정숙 권사, 박대화 집사, 민병일 집사, 최숙진 집사, 이경숙 집사, 김종태 집사, 박진영 권사, 정혜원 집사, 조영엽 성도, 김호식 성도, 박송자 집사, 황희정 성도, 이철우 성도, 한영덕 집사, 박수진 어린이, 변전현 어린이
- 제6교구: 김영진 집사, 손무길 성도, 김익희 성도, 전태호 집사, 노순경 권사, 유재옥 집사, 조예지 아기
- 제7교구: 김종만 집사, 이금희 성도, 이진태 권사, 김주홍 성도, 이요섭 집사, 김홍래 집사, 김영남 성도, 김귀녀 권사, 유근임 집사, 김병남 성도, 김평은 성도, 이순년 권사, 김애리 권사
- 제8교구: 조유남 성도, 경홍옥 권사, 박치주 권사, 조봉호 성도, 이학주 권사, 전진덕 권사, 김연규 성도, 이규빈 집사, 조두래 권사, 이순애 권사, 이광일 권사, 이상신 성도, 김은동 성도, 김준호 집사, 최병일 성도, 김태정 성도, 김현식 아기
- 제9교구: 이의행 권사, 엄향섭 성도, 박영엽 권사, 조병복 집사, 한명신 성도, 이은옥 권사, 이종현 성도, 이홍순 권사, 이의순 권사, 이대실 권사, 최금자 성도, 김충식 성도, 백희주 권사, 안병호 집사, 강영복 성도, 박옥란 성도, 이도원 성도, 차병석 어린이, 박효삼 성도, 유모순 성도, 정상순 집사, 이인자 권사, 나정묵 장로

- 제10교구: 이영숙 권사, 정경희 권사, 김순오 집사, 한경숙 집사, 박관배 성도, 정동훈 집사, 신순애 성도
- 제11교구: 조성만 성도, 조성철 성도, 조용구 성도, 김원철 성도, 한금례 집사, 지명숙 성도
- 제12교구: 이동옥 집사
- 제13교구: 박윤석 권사, 장경순 성도, 박원용 성도, 남은주 권사, 원도화 권사, 이순희 권사, 한필양 집사, 김행자 권사, 구수희 집사, 이진성 성도
- 제14교구: 마재하 집사, 전을순 성도, 김정남 권사, 안태래 권사, 김영자 권사, 김진만 권사, 김정남 권사, 김익환 성도, 석덕자 권사, 장영환 성도, 김금선 성도, 김신도 권사, 박병연 권사, 김미령 자매, 박윤석 권사, 김행자 권사, 안영수 성도, 박석순 권사, 김은관 권사, 성영순 집사, 이희권 집사
- 제16교구: 이영숙 권사, 정명녀 권사, 최길봉 성도, 황익수 집사, 심귀선 권사, 남명희 성도, 최창현 집사, 이영주 권사, 이승원 성도, 이진호 성도, 오수복 성도, 유근규 성도, 박상옥 성도
- 제17교구: 정순금 집사, 김두성 권사, 홍유순 권사, 조성금 권사, 안정 권사, 이상운 권사, 문홍구 장로, 천이자 권사, 최정자 성도, 최현자 성도, 김정란 성도, 유수진 성도, 유환성 성도, 김정환 성도, 정동훈 집사, 이정자 성도, 박효순 집사, 이희진 집사
- 제18교구: 김유경 어린이, 최현진 어린이, 박도승 성도, 장영자 성도, 장세복 구역장, 옥재련 성도, 김순자 구역장, 유금순 성도, 정동우 성도

● 구역예배 ●
(1992. 7. 17)

제자들의 전도 행적

-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 ~ 13절
- 요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어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하고 보살핌을 베풀어온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은 열세번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실제적인 전도 행적을 살펴보면 각자의 전도 생활을 점검해봅시다.

1.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르시고 보낸 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열두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들으셨고, 파송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의 명령을 받았고,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使臣)이 되었다”(고후 5:20)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전도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어느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막6:8, 9)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막으시며, 오직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길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3. 제자들의 전도 핵심은 회개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일이 잘되는 행운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4:17)고 외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도 동일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직 회개의 복음만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본질상 전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또한 이 회개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결 론

어느 통계에 의하면 “만약 100명의 교인이 일년에 1명씩 전도하게 된다면, 첫째 해에 100명, 둘째 해에 200명, 셋째 해에 400명, 10년째에 51,200명, 26년째에 약 20억 명, 27년이 지나면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1년에 1명 전도”를 생활화하기만 한다면 전 인류의 복음화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1년에 1명 전도”를 생활화합시다. 만약 우리가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의 배가 부흥은 물론 우리 세대에 전 인류의 복음화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 적용 및 기도

전 교인이 “1년에 1명 전도”를 생활화하여 구역과 교회의 배가 부흥과 전 인류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